

과총 창립30주년 기념식 성황

李壽成총리 비롯 각계인사 4백여명 참석 崔회장 기념사 “새로운 도약위해 일치단결하자”



▲ 4백여명의 과학기술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과총 창립30주년기념식에서 具本英과총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창립30주년기념식은 權肅一한국물리학회장의 「과학기술인의 신조」낭독으로 시작, 鄭助英과총상임부회장의 과총연혁보고, 崔亨燮과총회장의 기념사, 具本英과학기술처장관·姜昌熙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장의 축사, 특별공로패 수여 등으로 치뤄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崔亨燮과총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뜻깊은 창립 30돌을 맞아 새로운 30년을 내딛는 이 시점에서 과총은 과거의 축적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전환점에서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회원학술단체들의 학술활동조성에 힘써 연구수준 및 학회지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차원높은 국제간 학술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며 전국민의 과학화와 과학기술인의 사회적봉사기능을 강화시키는데도 앞장서는 한편 올해 신설된 과학회추진위원회와 과학기술봉사단의 활동을 극대화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회장은 이어 『이제 과총은 지난 30년간의 활동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건설을 위한 굳건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오늘 30년의 한 획을 그으면서 다가올 2천년대 선진조국의 구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 모든 과학기술인은 일치단결하여 새로운 각오로 각자의 소임에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具本英과학기술처장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단체의 총본산인 과총이 과학기술진흥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지난 66년에

우리나라 민간 과학기술계의 총본산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올해로 창립3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966년 제1회 전국과학기술자대회의 발의로 창립된 과총은 창립당시 71개 회원단체에서 304개 국내학회 및 연구기관과 9개의 해외한국과학기술자협회 등을 산하에 둔 과학기술단체의 총본산으로 성장, 그동안 국내외한국과학기술단체를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과학기술의 진흥창달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자의 권익향상, 회원단체 육성과 국민생활 과학화에 앞장서 왔으며 과학기술정책개발과 정보교류는 물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봉사기능의 극대화 등에

주력해왔다.

과총은 창립기념일인 9월24일 하오 4시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신관)에서 李壽成국무총리 具本英과학기술처장관 金德龍정무1장관 韓榮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姜昌熙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장 閔寬植과총명예회장 崔亨燮과총회장 등 각계인사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30주년 기념식을 비롯 기념강연,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 과총 30년간의 주요업적과 활동상을 담은 사진전 개막, 기념리셉션, 故 金允基초대회장의 흉상제막 순으로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창립30주년기념식〉 李傑三과총사무

설립된 이래 과학기술관련단체의 육성을 통한 학술활동의 진흥은 물론 국민 생활의 과학화와 과학기술인의 권익신장을 꾸준히 도모해왔고 아울러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건의로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고 치하하고 『과총은 이제 30년의 한 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의 지도자적 위치로 올라서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본인도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의 책임을 맡게된 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일관된 정책기조하에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보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姜昌熙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지난 30년동안 과총

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수많은 업적을 쌓아왔으며 또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그 누구보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도 과총이 우리 모든 과학기술인의 참여속에 빛나는 전통을 쌓아갈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역대회장에 공로패

이날 기념식에서는 과총의 육성발전과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에 크게 기여한 閔寬植과총명예회장(5·6·7대)을 비롯 趙完圭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8대) 朴泰源인하대명예총장(9대) 權彛赫서울대명예교수(10대) 金始中광주과학기술원이사장(10대회장직무대행) 成樂正한화그룹총괄부회장(11대) 鄭助英과총상임부회장(10대회장직무대행) 등 역대회장과 창립에 크게 기여한 金東一

과총상임고문에 대한 특별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기념강연〉 기념식에 이어 열린 기념강연에서는 咸仁英박사(美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명예석좌교수)의 「해외과학기술자가 본 과총 30년과 미래전망」, 朴星來박사(외국어대부총장)의 「한국과총과 과학기술 30년」등 두편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 과총은 이날 제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한해 동안 국내외 과학기술관련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가운데 소속학회의 자체심사를 거쳐 한편씩 추천된 우수논문을 종합심사하여 110편을 확정하고 이날 우수논문발표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시상했다.

우수논문으로 뽑힌 110편을 분야별

특별 공로 패

金東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상임 고문〉



지난 1966년 과총창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본 연합회 부회장과 상임고문 등을 역임하면서 「과학기술 혁신없이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연합회 창립의 주역을 맡아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건립에 크게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1986년부터 9년간 원로과학기술자문단 단장을 역임하면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크게 기여하였음.

趙完圭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지난 1984년 2월부터 1987년 2월까지 3년간 본연합회 제8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를 활성화하고 「원로과학기술자문단」을 창단, 유휴 원로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과총20년사」발간 등 과학기술인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

閔寬植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지난 1978년부터 6년간 본연합회 제5·6·7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과학기술인의 신조」를 새로 제정하고 「한국과학기술30년사」와 「인명사전」의 발간을 비롯 제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의 창립과 회원단체의 육성기반 확립 등 과학기술인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1992년부터 3년간 한국과학기술회관건립기성회장으로서 기금확보에 진력함으로써 회관건립에 크게 공헌하였음.

朴泰源 〈인하대학교 명예총장〉



지난 1987년 2월부터 1990년 2월까지 본연합회 제9대회장을 역임하면서 회원학회를 육성하고 「기초연구활성화추진협의회」를 발족, 기초연구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재중조선족과학기술협회」 창립과 한국과학기술회관부지매입 등 과학기술인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

로 보면 이학부문 25편, 공학 38편, 농수산 18편, 보건 18편, 종합부문 11편 등이며 이중 해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42편이고, 나머지 68편은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SCI에 수록된 논문은 모두 46편에 달한다.

〈과총창립30주년기념사진전 개막〉 과총은 이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성년과총의 발전과정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연대별로 활동상과 그간의 주요 업적이 담긴 사진전을 개최했다.

10월4일까지 제2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사진전은 1966년 창립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0년간 과총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각종 사진들과 그간에 발간된 각종 간행물이 각종 연표와 함께 전시됐다.

〈과총창립30주년기념리셉션〉 李壽成

국무총리를 비롯 具本英과기처장관 鄭宗澤환경부장관 金德龍정무1장관 姜昌熙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장 등 내빈과 과학기술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 리셉션에서 李壽成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난 30년동안 과총은 과학기술분야 학술단체의 육성 지원을 통한 연구활동의 진작, 과학기술의 권익 향상 뿐만아니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건의, 과학기술 정책의 확립과 추진을 위한 비판과 협력,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 개최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고 치하하고 『자랑스러운 과학한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진력하여 열과 성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과총창립30주년기념 케익커팅이 있던 후 閔寬植과총명예회장의 과

총의 무궁한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는 축배제의에 따라 건배를 하고 성년과총을 축하했다.

故 金允基초대회장 흉상제막

〈흉상제막〉 이날 기념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작고한 金允基초대회장의 흉상제막이 있었는데 崔亨燮회장, 閔寬植명예회장, 金東一상임고문과 고인의 장남인 金鐸一전 한림대의과대교수가 가족대표로 과학기술회관 본관 1층 현관벽에 위치한 흉상을 제막했다.

故 金允基초대회장은 지난 1966년 9월24일 71개기관대표들이 모여 서울신문회관에서 개최된 과총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어 1978년 2월까지 12년간(4대) 과총회장을 역임하면서 과총의 창립과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건립에 크게 기여했다. ㉮

수상자 프로필

權 彛 赫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지난 1990년 2월부터 1992년 4월까지 본연합회 제10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회원학회를 육성하고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를 발족시켜 남북과학기술교류의 물꼬를 트는 한편 「재소고려인과학기술자협회」 창립과 「과학기술논문목록집」 발간 등 과학기술인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

金 始 中 (광주과학기술원 이사장)



지난 1992년 4월부터 1993년 2월까지 본연합회 제10대 회장직무대행을 역임하면서 과학기술인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은 물론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를 창립, 전세계에 퍼져있는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일간 「과학과 기술」지의 확대 개편 등에 크게 기여하였음.

鄭 助 英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상임부회장)



1978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본연합회 사무총장, 상임부회장, 회장직무대행 등을 역임하면서 본 연합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회원학회를 육성함과 동시에 재외과학기술자의 국내유치 및 「재소」와 「재외한국과학기술자협회」 창립과 「남북과학기술자대회」 개최 등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교류의 장을 열었을 뿐만아니라 특히 한국과학기술회관건립추진위원장으로 한국과학기술회관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成 樂 正 (한화그룹 총괄부회장)



지난 1993년 2월부터 1996년 2월까지 3년간 본연합회 제11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회원학회를 육성하고 「재외한국과학기술자협회」 창립과 한국과학기술회관건립기금 확보등으로 한국과학기술회관 건립에 크게 공헌하였음.